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홍성2차승원팰리체.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0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27일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쇠락하는 전남 어촌…빈집 늘어도 개발할 땅이 없다

규제 중심 공유수면 관리에 외지인 소유의 빈집 갈수록 늘어
보성 석간·고흥 우두마을 등 대부분 편의·소득시설 설치 못해

#.보성 석간마을의 강영엽(55) 어촌계장은 최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다. 20여 년 전 보성군 회천면 해안을 따라 조성된 '다향길'의 안쪽이 육지화된 지 오래인데, 최근 육지화된 공간을 어울림센터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립에 나섰다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계장은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회복했으나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고흥 우두마을의 김용(47) 어촌계장은 어업활동에 불가피한 창고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3년 넘게 노력했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가 없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빈집이 여러 곳에 널려 있지만 외지인들이 이를 내놓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시달리며 곳곳에 빈집, 공터가 급증하고 있는 전남 어촌이 정작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가 공모하거나 추진하는 모든 사업·프로젝트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촌이 시설 부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규제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방치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어촌들이 자부담으로 시설 부지를 어렵사리 마련하거나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촌 쇠락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전남도의 어가 인구는 3만4620명(1만5723가구)으로 2010년 5만4981명에서 무려 2만361명(37.03%)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빈집, 노후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거주인구를 늘리지 못하자 관광객이라도 유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산책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곳곳이 해안에서 고립되어 육지화되는 등 부지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이들 빈집이나 노후시설, 공유수면 등 남아도는 공간과 부지를 어촌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서 4년간 98곳의 어촌이, 윤석열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서는 2년간 27곳의 어촌이 각각 선정되는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반·수익·편의시설 부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젊은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귀어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변경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이미 육지화가 진행돼 바다와 분리된 공유수면의 경우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3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경우 지자체나 어촌계가 공시지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영엽 보성 석간 어촌계장은 "문제가 된 공유수면은 10년 이상 논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준공된 어울림센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매립한 것"이라며 "지금 이 땅은 바다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해서 민물을 채워 놓았다"고 토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어촌 삶의 질 향상과 귀어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요소인 시설 부지,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용 고흥 우두 어촌계장은 "어촌에 좋은 시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주민과 귀어인이 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어촌들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붕색을 통일한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어촌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료대란' 전남대병원 2개 병동 폐쇄 ▶6면
KIA 스프링 캠프 - 최원준, 더 빨라진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경기도 남양주 이색 카페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尹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전공의 업무공백 메우겠다"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의료현장 이탈을 두고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연합뉴스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1%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피치는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견고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선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